



## 현대 호주 사회에서의 무슬림 커뮤니티와 교회의 선교적 담론에 관한 이해

A Study of The Contemporary Muslim Community in Australia :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 Cultural Ministry

---

**저자  
(Authors)** 이경희  
Kyung Hee Lee

**출처  
(Source)** [Muslim-Christian Encounter](#) 11(1), 2018.3, 105-136(32 pages)

**발행처  
(Publisher)**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19333>

**APA Style** 이경희 (2018). 현대 호주 사회에서의 무슬림 커뮤니티와 교회의 선교적 담론에 관한 이해. *Muslim-Christian Encounter*, 11(1), 105-136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8 (Accessed)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현대 호주 사회에서의 무슬림 커뮤니티와 교회의 선교적 담론에 관한 이해

이경희\*

- I. 서론
- II. 호주 무슬림 커뮤니티 이해 - 이민, 주변화, 이슬라모포비아 중심으로
- III. 호주 무슬림 동화정책과 교회의 협력관계 이해 - 호주 국가주의와 다문화주의 중심으로
- IV. 호주 무슬림의 제한적 공간과 선교적 접촉점 - '집'과 '손님'의 교차적 이해와 선교
- V. 호주 유나이팅 교회의 커뮤니티 선교 - 교회 공간의 선교적 적용 중심으로
- VI. 결론

\*햇볼트리니티 한국이슬람연구소 연구원

## I. 서론

현재 호주의 이슬람과 관련한 많은 사회학적 정치학적 담론들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의 서구 전통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의 현상들에 관한 것이며 또 그것을 분석하여 공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1</sup> 정승현 교수의 지적대로<sup>2</sup>,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슬림은 유대 기독교 전통을 고수하는 호주 서구 사회 안에서 지난한 역사를 겪었다.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집단 혐오증으로 고착된 이데올로기는 차별과 폭력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sup>3</sup> 특히 이민국가로서 정치, 경제 문화적 토대를 쌓고 있는 호주에서 이슬라모포비아 현상은 다문화주의 정치적 명암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호주의 이슬라모포비아의 문제는 다양한 이슈들과 맞물려있다. 다문화정책, 이민정책, 인종과 문화의 복합적인 현상과 문제들, 무슬림을 대하는 호주 정부기관과 교회의 권위주의, 무슬림 난민 정책의 혼선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은 무슬림만의 문제는 아니다. 호주 사회에 이민으로 유입된 다양한 민족들에게서 공통

1 Gary D. Bouma, "Islamophobia as a Constraint to World Peace: The Case of Australia,"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22:4 (2011), 433-441; Derya Iner, ed., *Report on Islamophobia in Australia, 2014-2016* (Sydney:2017); Randa Abdel-Pattah "Islamophobia and Australian Muslim Political Consciousness in the War on Terror,"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vol.38, no.4 (2017), 397-411; Rhonda Itaoui, "The Geography of Islamophobia in Sydney: Mapping the Spatial Imaginaries of Young Muslims," *Australian Geographer*, vol.47, no.3 (2016), 261-279; Riaz Hassan & Bill Martin, ed., *Islamophobia, Social Distance and Fear of Terrorism in Australia* (Adelaide: International Centre for Muslim and Non-Muslim Understanding, 2015).

2 정승현, "이슬라모포비아의 이해와 선교학적 함의,"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9, no. 2 (2016): 18.

3 2005년 시드니의 크로눌라(Cronulla) 인종주의 갈등 사례에 대해서는 "Clive Pearson, 'Alienated Neighbours' Interpreting the Cronulla Race Riots for Christ's Sake," - *Forum on Public Policy: A Journal of the Oxford Round Table*, (Summer, 2008).

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호주 안에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인종주의(racism)는 무슬림을 포함한 모든 이민 커뮤니티의 오랜 싸움이며 정부와 앵글로 백인 사회의 뿌리 깊은 배타적 의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은 오늘 교회가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아픈 과거들이다.

이민자로서 또 난민으로서 이 호주 땅에 손님으로 오게 된 무슬림들은 기독교적 배경을 소중히 하는 호주 주류층의 사람들에게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다가가면, 그들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대등하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왔던 무슬림들이 아닌, 절대적으로 기독교의 자비와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다. 즉, 현재 호주 사회에 있어서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이민자들이며 난민들이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공식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종교적, 문화적 타자인 무슬림에 대해 특히 교회와 국가는 차별을 더 고착화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정황들을 호주 국가주의와 다문화 주의 아래 교회와 국가의 협력 관계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현재 호주의 교회가 무슬림과 같은 타자를 이웃으로, 친구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화자로 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즉, 국가 중심의 권위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교회의 태도들을 반성하고 복음이 사회의 정의와 동행하며 또 그 삶의 공간을 나눌 수 있도록 목회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오늘의 교회 안에서 찾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별히 같은 종교적 타자들을 대하면서, 이슬람과 같은 문화와 전통의 타자들을 마주하면서, 이민과 다문

화라는 특별한 선교적 목회적 정황 가운데 이를 담론화 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선교적 운동의 사례를 호주 유니버시티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

## II. 호주 무슬림 커뮤니티 이해- 이민, 주변화, 이슬라모포비아를 중심으로

호주에 이슬람이 들어온 것은 2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무슬림 이민자의 상당수는 1860년 아프가니스탄 낙타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당시 호주 원주민과 정복민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해주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통해 호주로 들어왔다.<sup>4</sup> 1911년 실시된 호주 최초 인구조사에 의하면 1860년대 당시 약 3908명의 모하메단이 있었으며 95%는 남성으로서 전체 호주 인구의 0.09%를 차지하고 39%가 서호주에 거주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sup>5</sup> 1920년부터 낙타를 이용한 교통이 줄어들자 아프가니스탄 인구는 감소하였고 특히 백호주의(white Australian policy) 영향으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 호주의 인구는 앵글로 셀틱 민족이 주를 이뤘다.<sup>6</sup>

전쟁이 끝나고 호주 정부는 국가 재건을 위해 유럽지역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1960년 이후 이탈리아와 그리스 출신들이

4 Samina Yasmeen, ed., *Muslims in Australia: The Dynamics of Exclusion and Inclusion*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10); Kate O' Donnell, Rachel Davis & Jacqui Ewart, "Non-Muslim Australians' Knowledge of Islam: Identifying and Rectifying Knowledge Deficiencies,"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vol.37, no.1, (2017), : 40.

5 Kate O' Donnell, Rachel Davis & Jacqui Ewart, "Non-Muslim Australians' Knowledge of Islam: Identifying and Rectifying Knowledge Deficiencies," 42-43.

6 Australian Government, "Afghan Cameleers in Australia," in *Australian Stories*, 2009. <http://www.australia.gov.au/about-australia/australian-story/afghan-cameleers>, (accessed 2 Dec. 2017).

늘어나고 이후로도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를 가진 이민자들이 호주로 들어왔다. 같은 시기에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의 유럽에서 들어온 이민자 행렬에 무슬림들도 함께 들어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980년대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1990년까지 무슬림의 수가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약 2천만 정도의 호주 인구 중 무슬림이 2.2%를 차지한다.<sup>7</sup>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대부분의 호주로 들어온 이민자들은 대도시와 위성 도시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종교 집단이 있는 대도시에 정착하였으며 이민자들의 도시 생활은 약 60여년의 세월을 맞이하고 있다. ‘시드니’(Sydney)와 ‘멜번’(Melbourne)과 같은 대도시와 그 위성도시들은 주택과 고용의 기회가 더 많고 특히 종교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곳에서 종교 센터들이 설립되어 무슬림과 같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라켄바’(Lakemba), ‘윌리 파크’(Wiley Park), ‘어번’(Auburn)은 무슬림들의 주요한 거주 지역이 되었다.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인들, 이를테면, 불교인이나, 시크교도, 힌두교도들과 마찰이 생기기 보다는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이 더 빈번하게 조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니에 사는 유대인들은 빅토리아주의 사람들과 다르게 단독 주거 단지를 형성하여 상당히 독자적인 생활하며 타종교인이나 타문화에 개방적이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여서 주로 서로 다른 지역에 모여 산다.<sup>8</sup>

이미 오래전부터 호주 이민 사회에 유입하여 들어와 다양한 문

7 Ibid., 43.

8 D. Bouma, "Religious concentrations," *Pointers*, vol. 23, no. 4 (Dec 2013): 1-6.

화적, 민족적, 언어적 배경을 형성하게 된 무슬림들은 현재 전체 호주 무슬림 인구의 1/3이 호주 땅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을 대하는 호주인들과 호주 정부의 인식은 1996년 이후부터 부정적이고 방어적이기 시작했다. 1996년 연방선거에서 호주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고 정당 활동에 의해 호주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가치가 강조되기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약 200 여년에 걸쳐 정착하게 된 무슬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더욱이 미국에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무슬림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이 더욱 두드러졌다.<sup>9</sup>

이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호주의 무슬림 커뮤니티는 그들의 일상에서 발생해온 이슬라모포비아에 많은 우려들을 표시해왔다. 특히 빅토리아주의 이슬람 여성 복지 위원회(Islamic Women's Welfare Council of Victoria, IWWCV)와 같은 NGO 단체들은 이슬라모포비아 때문에 자신들이 주류 사회로의 진입이 쉽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슬림 여성, 난민 그리고 청소년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부 차원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sup>10</sup>

이들의 보고 대로 호주 사회에서 이민과 난민의 형태로 들어온 무슬림 여성과 청소년들은 심각한 수준의 이슬라모포비아 피해를 겪고 있다. 이것은 호주 사회 전반에 나타나 있는 반이슬람 정서와 태도에 위한 것이며, 그들은 실제로 다른 이민자들 특히 무슬림 성인 남성들보다도 더 훨씬 열악한 사회적, 정치적 고립감 속에 살아간다. 무슬림 여성과 청소년들은 비무슬림 사람들에게 널

9 Ibid., 6.

10 Nafiseh Ghafournia, "Muslim women and domestic violence: Developing a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Religion & Spirituality in Social Work: Social Thought*, vol. 36, no. 1, 2 (2017): 146.

리 빠져 있는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으로 삶의 가장자리에서 경제적으로 고단하고, 직업과 커뮤니티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고 살아간다.<sup>11</sup>

현대 호주 사회에서 무슬림에 대한 공간적인 제약, 의식적인 제약은 인종주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더욱 강해지기도 하였다. 인종주의와 이슬라모포비아의 세계적인 기류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에서 출발하였지만 정작 호주 사회에서 이웃으로 살아가야 할 평범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 반아랍 혹은 반무슬림이라는 폭력의 이름으로 호주 사회에도 인종주의가 확산된 것이다. 이것은 시드니 부근 크로놀라 지역의 폭동(2005)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였고 급기야 “호주 보호주의”(Reclaim Australia)가 주창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이슬람 혐오형 범죄, 인종차별적인 행동들이 발생하게 되었다.<sup>12</sup>

특히 종교를 인종주의 관점, 즉 차별의 관점에서 취급하려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종교로서의 이슬람과 무슬림 그리고 무슬림 문화까지도 전체화 시켜서 증오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새로운 인종차별이 이슬라모포비아 현상에서도 발생하게 된 것이다.<sup>13</sup> 이러한 새로운 인종주의는 호주 사회 내에서 소수자들을 타자화시키고, 언론의 편협한 보도를 자주 등장시켰으며 정치인들의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였다.<sup>14</sup>

11 Ibid., 147.

12 Gary D. Bouma, “Islamophobia as A Constraint to World Peace: The Case of Australia,”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vol.22, no.4 (2011): 433.

13 J. Jupp, “The Quest for Harmony,” in J. Jupp, J. Nieuwenhuysen and E. Dawson, eds., *Social Cohesion in Australia*, (Port Melbourne, V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9–20.

14 Ibid., 18–19.



프라이다 포즈다(Frida Fozdar)는 호주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하여 호주 백인 기독교인들의 책임을 언급하였다.<sup>15</sup> 그에 의하면, 호주 국민 중의 약 36%를 차지 하는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호주인은 기독교인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약 1/3의 호주인들이 무슬림이 호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즉 무슬림들이 호주인들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sup>16</sup>

이러한 강제적이고 차별적인 무슬림 인식과 이들을 동화시키려는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은 무슬림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추상적이고 무슬림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표들을 개선시키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무슬림이 호주 시민 사회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동화정책에 순응하며 사회적 통합의 지침들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여전히 무슬림은 변두리 이민자의 삶의 제한적 경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무슬림과 이민자들은 호주 국가 안에서 백인 주류 사회 계층에 비하여 가난하고 고용의 기회가 적으며 교육과 교류에 있어서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특히 레바논계 무슬림들은 같은 레바논계 기독교인들보다 고용과 교육의 기회가 더 적다는 보도가 있다.<sup>17</sup> 2008년 기준 약 7%의 무슬림이 실업자이며, 반 정도만이 자기 주택이며 2배 이상 빈곤 아동의 실태를 나타낸다. 난민으로 온 무슬림들이 특히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75%의 무슬림들

15 Farida Fozdar, "Social Cohesion and Skilled Muslim Refugees in Australia: Employment, Social Capital 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Sociology* vol 48, Issue 2 (2011) 167.

16 Ibid., 167.

17 J. Jupp, "The Quest for Harmony," 10-13.

이 평균 수입 미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sup>18</sup>

### Ⅲ. 호주 무슬림 동화정책과 교회의 협력 관계 이해 - 호주 다문화주의와 국가주의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종교가 부흥하고 이민을 통해 다양한 종교가 유입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호주 정부는 이질적인 에스닉 그룹들에 의하여 오히려 호주 사회의 질서와 안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 중에서도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를 내재한 국가 통합의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특히 무슬림 커뮤니티가 반발을 하거나 충돌을 일으켜 호주 사회에서 분쟁거리가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한 국가 주도의 교육은 주로 무슬림이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무슬림커뮤니티에 호주 국가 안에서 시민으로서 지녀할 도덕적 가치 교육, 시민 의식 교육을 특별히 강조해왔다.<sup>19</sup>

이것은 호주 정부에 의하면 에스닉 그룹에 대한 ‘사회적 통합 혹은 포용’(social cohesion)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정한 사회적 포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전통과 종교적 배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한 국가의 시민이 되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 된다는 것은 더 정교하고 실제적인 윤리와 내재적인 가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교함과 배려로 이질적인 에스닉이라고 할지라도 존중받는 커뮤니티가 되며 호주 사회에서 진

18 Farida Fozdar, "Social Cohesion and Skilled Muslim Refugees in Australia: Employment, Social Capital and Discrimination," 180.

19 Ibid., 167.

정한 사회적 포용을 경험할 수 있다.<sup>20</sup>

즉,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민자 스스로가 한 국가 혹은 사회 혹은 지역의 커뮤니티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법적인 보호와 평등한 대우를 받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조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스스로 사회에 참여자가 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 사회적 포용성을 경험하는 것이라 하겠다.<sup>21</sup> 하지만 이러한 가치와 실천이 호주 무슬림들에게 시행되고 이뤄져왔는가를 반문해 볼 때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다시말해 호주 주류층들은 이러한 ‘사회적 포용성’의 논의에 있어서 특히 무슬림들에게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지녀왔다.

이러한 사회적 포용성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과제는 교회의 과제이기도 하였으며 국가와 지역의 매개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현재는 호주의 모든 교회가 그 교세에 있어서 가톨릭을 제외하고 많이 기울어지고 약해졌지만 여전히 호주 정부의 국가적 정체성과 문화적 동일성에 대한 교회의 지위와 협력은 유효하다. 교회는 호주정부가 유대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도록 지원하며 교회의 영향력을 정치와 사회 문화 전반에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호주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고 서로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호주의 교회는 성공회의 전통에 따라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과 안전에 항상 협력한다. 예를 들어 성공회의 목사들은 국가로부터 월급

20 Ibid., 168.

21 Jon Stratton, With God on Our Side: Christianity, Whiteness, Islam and Otherness in The Australian Experience,” *Continuum*, vol.30, no.6 (2016): 620.

22 Jon Stratton, “Whiteness, Morality and Christianity in Australia,”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vol.37, no.1 (2016): 17–32.

을 받았으며 호주 건국일에는 교회에서 기념예배가 이뤄져왔다. 또한 결혼 서약과 장례 집행에도 반드시 배석하여 목회자가 국가와 교회의 이름으로 법적 역할을 대행하도록 한다.<sup>23</sup> 이처럼 교회와 국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회가 타종교 특히 이슬람을 인식하는 것은 다문화주의의 호주의 국가적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교회가 어떻게 타종교를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배경에서 온 이민자들을 이해할 것인가는 교회가 국가를 위해 항상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이다.

교회가 어떻게 커뮤니티 활동을 펼쳐서 이질적인 에스닉 그룹을 지역의 커뮤니티에 소속시키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국가의 사회적 활동이 이뤄지며 지원 정책이 수립된다. 이러한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정치적 지향성을 지닌 집단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호주 국가의 단일한 정체성으로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sup>24</sup> 한 국가 안에서 정치성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커뮤니티로서 그 영향력을 끼쳐왔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특히 이민사회에서의 통제와 동화 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 왔다.<sup>25</sup>

2004년 호주의 하워드(John Howard)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정부는 더욱 더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대 기독교 역사와 문화를 국가의 중심 가치로 두게 되었다. 하워드 정부의 당시 재정부 장관 코스텔로(Peter Costello)는 2004년 호주의 한 스코틀랜드 배경의 장로 교회에서 십계명이 호구 국가의 기본 통치 이념이며 가치임을

23 Andrew Murry, *What Can The Church Say? : Politics and Religion in Contemporary Australia*, (N.S.W: St Pauls Publications, 2005), 32.

24 Ibid., 35.

25 Ibid., 36.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sup>26</sup> 이 연설에서 유대 기독교적 가치는 특히 영국 출신의 중산층 시민들의 의식 속에 전통으로 내려왔으며 호주 국가의 기틀이 되었다고 주장했다.<sup>27</sup> 그리고 이러한 하워드 정부의 기독교적 정치 사상은 2001년 발생한 9/11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sup>28</sup>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리즘과 관련된 모든 이슬람의 폭력적 행위들을 보면서 하워드 정부는 보수 기독교의 관점을 두둔하였으며 세계 모든 지역의 서구의 문명과 사상은 이슬람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9</sup>

웨스턴 시드니(Western Sydney) 대학의 교차문화 연구교수(Cross Cultural Studies)인 소피 선더랜드(Sophie Sunderland)는 하워드 정권과 같이 호주 정부가 유대 기독교적 가치와 문화를 선호할때 이것은 호주 안의 특정 그룹, 이를 테면 백인 보수 기독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것은 동시에 모든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배척하고 배제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하였다.<sup>30</sup> 이러한 그녀의 비판은 유대 기독교적 가치와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오히려 이 사회 안에 사회적 포용성을 경험해야 할 무슬림들이 심각하게 소외시키고 배제될 수 있음을 경고한 내용이었다.<sup>31</sup>

26 Peter Costello, *The Costello Memoirs: The Age of Prosperity*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08).

27 하워드의 호주 노동자계급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P. 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Hammondsworth: Penguin, 1968); Robert Featherstone Wearmouth, *Methodism and the Working Class Movements of England 1800-1850* (London: Epworth Press, 1937) 참조하라.

28 Jon Stratton, "Whiteness, Morality and Christianity in Australia," 17-32.

29 Ibid., 29.

30 S. Sunderland, "'A Deeply Secular People': Representations of 'Religion' and Nation in Canada and Australia," *Australasian Canadian Studies*, vol.26, no.2 (2009): 87-123, Jon Stratton, "Whiteness, Morality and Christianity in Australia," 18, 재인용.

31 소피선더랜드의 정치와 종교에 대한 연구로는 S. Sunderland and Holly Randell-Moon, eds., "Secular Discomforts: Religion and Cultural Studies." Special issue, *Cultural*

또한 우익성향을 가진 호주의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 이하CDP)는 ‘기독교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2002년 모스크바 극장의 인질극이나 2015년 파리의 유대인 마켓 공격 및 여러 ISIS의 테러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리고 호주 국가가 유대 기독교 문화적 토대 위에 세워진 기독교 복지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정당의 대표, 프레드 니일(Fred Nile) 목사는 호주로 들어오는 난민 중에 우선적으로 리비아 콥틱 기독교인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종교적으로는 호주가 무슬림 이민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것은 리비아 콥틱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과 달리 호주에 적극적으로 동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이었다.

이처럼 극보수주의 기독교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유대 기독교 전통을 강조하고 이것이 호주 국가주의의 단일한 민족적 가치임을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CDP 이외에도 또다른 기독교 정당인 “Rise Up Australia Party”(이하, RUAP) 역시 다민족 아래 단일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유대기독교적 전통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UAP는 이슬람법, 샤리아(*sharia*)가 제도화 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였다. “우리는 무슬림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경전인 꾸란과 그들의 모든 문서화 된 율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무슬림들이 호주의 문화적 전통적 가치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정당의 대니 날리아(Danny Naliah) 목사는 특히 보트 피플의 유입을 통해 무슬림 인구가 늘어난 것을 경고한 바 있다.<sup>32</sup>

---

*Studies Review*, vol.18, no.2 (2012): S. Sunderland, “Neutralizing Secularisms: Representations of the secular in John Safran versus God and God on my Side,” *Review of Education, Pedagogy and Cultural Studies* vol.31, no.2,3 (2009): 201–220.

32 Jon Stratton, “With God on Our Side: Christianity, Whiteness, Islam and Otherness in The Australian Experience,” *Continuum*, vol.30, no.6 (2016): 618.

호주 안에서도 악명 높은 인종주의 정치가 폴라인 헨슨(Pauline Hanson)은 극우보수 정당 활동을 통해 이민과, 다문화 주의를 대상으로 호주백인 중심주의를 펼쳐왔다. 최근 그녀의 행보는 이민과 다문화주의에서도 특히 이슬람에 대한 반대운동을 향해 있다. 그녀가 대표로 있는 “One Nation Party”에서는 지난 2016년 4월 소위 “이슬람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당은 기독교 정당은 아니지만, “호주는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세워진 국가이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녀는 한 때 호주 원주민인 ‘아보리진’(Aborigin)과 아시아인들을 특정적으로 공격하였고 최근에 들어 무슬림들을 호주 사회와 법을 준수할 수 없는 이들로 단정하고 있다.<sup>33</sup>

폴라인 헨슨을 선두로 여전히 호주 안에는 다문화 주의와 무슬림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25%~30%이며,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약 14%에 달한다. 아직도 호주 전 인구의 약 ¼ 정도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겨우 2%에 달하는 무슬림들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9월 한 조사에 의하면 호주인의 49%의 사람들이 무슬림 이민을 종식시키기를 원한다고 답했다.<sup>34</sup>

오히려 다문화주의를 경험하면서 일부 호주인들, 구체적으로 앵글로 켈틱계 백인들은 단일문화주의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에 의해 다문화주의가 비판받고 반인민, 반이민, 반원주민 전략으로 가시화 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있는 반이슬람 정서도 호주 내

33 John Stratton, “With God on Our Side,” 620.

34 Ibid., 621.

반다문화주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문경희의 지적대로, 호주 정부가 다문화 주의 정책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관리’하고 ‘다문화 호주’라는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소수 공동체의 문화와 그 역동성이 외면되는 점, 그리고 공동체 간의 문화에 따른 위계관계 형성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현안이다.<sup>36</sup>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이러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진 정당들이나 단체들이다. 기독교의 자비와 환대의 성서적 가르침은 사라지고 그들의 이민자, 난민, 특히 무슬림과 같은 타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자비롭지도 포용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상당히 배타적이고 극단적이기까지 하다. 이들은 구약성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나그네(refugee)를 향한 신학과 믿음의 실천을 배제시키고 유대기독교적 가치만을 내세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37</sup>

#### IV. 호주 무슬림의 제한적 공간과 선교적 접촉점 - ‘집’과 ‘손님’의 교차적 이해와 선교

호주 사회에 이민이나 난민의 신분으로 들어와 정착하려는 무슬림들은 지속적인 차별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슬람 혐오증에

35 이희진, 문경희 역음, 『현대 호주사회의 이해』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1), 229.; 이태주, “호주 다문화주의 역사와 정책 및 담론,” 『다민족 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1-44.

36 문경희,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민족 정체성 형성과 인종 문화 갈등,”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 (2008): 245.

37 John Stratton, “With God on Our Side,” 620.



서 오는 불안하고 폭력적인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지역적으로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한다. 그들을 혐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지역은 호주 전체에서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무슬림들이 게토화 되어 있는 상황은 무슬림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과 긴장감을 조성하기 쉽게 만든다. 이웃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무슬림들은 한 호주의 사회적 참여적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그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호주 무슬림의 제한적인 삶은 공간의 개념으로 표시될 수 있다. 즉 무슬림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현실은 무슬림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그들의 삶의 제한적인 활동의 영역을 엿볼 수 있다. 호주 사회 내부에 소속되지 못하고 외부자로, 변두리로 밀려나가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특히 새로 유입된 이민자들일수록 무슬림들의 제한된 공간에서의 삶은 한정되어 있으며 정착하게 된 곳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웃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인식은 무슬림뿐만 아니라 호주 사회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호주인들의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장소들, 이를테면, 아름다운 해변가, 공원, 운동장 등과 같은 공공 장소, 혹은 분주한 도시의 거리나 쇼핑몰 그리고 대중교통까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좁아지고 위협을 받기도 한다. 무슬림이 누군가에게 공공연하게 위협스럽고 혐오스러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sup>38</sup>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무슬림들은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집의 주인이 아닌 손님의 자리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 이러한 상황을 신학화 하고, 선교적 담론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세포르사(Seforsa)의 ‘집’과 ‘주인’ 그리고 ‘손님’의

38 R. J. Al-Natour, "The Constructions of Sydney's 'Muslim Ghettos,'" *Contemporary Islam*, vol.9, no.2 (2013): 131.

교차적 의미들을 적용해볼 수 있다.<sup>39</sup> ‘집’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집’에 대한 공간적 이해는 단순히 주택 공간뿐만 아니라 정주민이 머물 수 있는 모든 물리적 공간으로서 주택, 거리, 땅, 국가 외에 궁극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소속감을 주는 종교도 ‘집’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집’으로서의 종교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손님과 주인이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한 장소가 바로 ‘집’이다.

한편 공간으로서의 ‘집’이 단순히 물리적 의미에서 마음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데는 사랑과 자비의 수고가 필요하다. 손님이나 나그네에 대한 ‘환대’(hospitality)는 몸과 정체성, 집과 장소, 국가와 공간 등의 관계를 연결하는 소통의 언어가 된다. 특히 이것은 몸과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sup>40</sup> 린다 맥도웰(Linda Macdowell)은 레비스트로스의 집, 공간에 관한 이해를 적용하여 “타자와의 관계”로 확장시켰다.

“집은 우리의 몸과 매우 친근하다. 집은 일종의 한 개인의 확장된 공간 혹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우리의 몸이 피부와 옷으로 덮여있듯 집은 우리를 숨기기도 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집과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우리의 은신처가 되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sup>41</sup>

39 Sefors Carroll, “Homemaking in the Diaspora from Displaced Guest to Responsible Host,” Stephen Burns & Clive Pearson ed., *Home and Away* (OR: Pickwick Publications, 2013), 214.

40 Ibid., 215.

41 MacDowell,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http://www.localities.kr/sub\\_pg/img/160119/03-1.pdf](http://www.localities.kr/sub_pg/img/160119/03-1.pdf) (accessed 31 Jan, 2018).

린다 맥도웰의 ‘집’에 대한 의미의 확장적 해석은 이민과 난민의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한 신학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손님이 다시 주인이 되는 공간은 ‘집’ 안에서 이뤄진다. ‘집’의 개념 속에 한 개인, 국가 그리고 민족의 세계관과 가치와 정체성이 내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국가도 될 수 있고 커뮤니티도 될 수 있고 교회의 공간도 될 수 있다. 종교와 문화가 낯선 이들에게, 집을 찾는 이들에게 교회가 무한한 ‘환대’(hospitality)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집 밖의 타자와 교류하고 서로를 재현하는 미러 역할을 하는 집에 대한 이해는 선교적 담론으로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집’과 ‘손님’ 그리고 ‘주인’에 대한 통찰은 이민과 난민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집’을 낯선 이들에게 내어주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한 교회가 종교적으로 타자인 특히 무슬림들을 ‘집’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타자성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는데 종교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해는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준다. 특히 멜번 대학교의 게리 보우마(Gary Bouma) 교수는 그 동안 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부각시켜 온 사회학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종교의 이해 그리고 그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그의 종교에 대한 이해는 이질적인 에스닉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을 제공한다. 게리 보우마는 호주 사회의 종교적 현상에 주목하는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성공회 신부이다. 그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의 현장에서 종교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조한다. 그의 사회적 종교적 통찰은 실제로 호주 사회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과 포용적인 실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sup>42</sup>

42 Gary Bouma, *Being Faithful in Diversity* (Adelaide: ATF press, 2011); “Islamophobia

보우마 교수의 안내대로, 한 사회가 종교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회는, 교회는, 그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양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해나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종교를 긍정하고 그 순수성과 특별함이 주는 의미가 결국 사회의 포용성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게리 보우마 교수는 모든 민족성과 문화는 그들이 따르는 종교 안에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의 복합적인 구조와 응집성, 집단성을 관찰하고 적용하면 타자를 포용할 수 있고 이질적인 문화 혹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다.

호주의 교회와 국가가 사회적 통합을 위한 협력의 관계를 이루려고 할 때 이러한 게리보우마의 종교에 대한 접근과 적용은 유익하다. 실제로 호주의 교회들이 국가의 이러한 노력에 협조적이다.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공간을 열어 종교적으로 전혀 다른 타자이지만 그들을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 이민자를 초청하고 다양한 문화의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며 종교 간의 대화를 주최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이 처한 빈곤의 문제, 가정 폭력의 문제, 난민의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공유한다. 호주에서는 교회가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 그 공간을 열어 봉사하는 것은 여러 지역과 교단을 불문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sup>43</sup>

비록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이에 대해 호주 기독교인들 역시 많은 우려를 표시하지만 호주 안에 이웃

---

as a Constraint to World Peace: The Case of Australia,”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vol.22, no.4, (2011): 433-441; “Religious Concentrations,” *Pointers* vol.23, no.4 (Dec 2013): 1-6; “Religious Diversity and the Challenge of Social Inclusion,” *Social Inclusion* (ISSN: 2183-2803), vol.4, issue 2 (2016): 1-2,

43 Gary Bouma, “Religious Diversity and the Challenge of Social Inclusion,” 1-2.

으로 사는 많은 온건주의 무슬림들이 교회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모습은 집안에 초대된 손님과 그들을 환대하는 주인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것은 곧 이민자의 삶의 자리에 관한 의미들을 돌아보게 한다. 이러한 교회의 환대는 이민사회 안에 교회가 집으로서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타자와의 만남과 접촉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선한 시도들이다. 실제로 호주 교회들이 이슬람에 대해 이해의 장을 만들고 학문적으로도 이해하고 삶에 현장에서 이해해야 함을 권면하고 그 지식과 정보의 폭을 넓혀나가려 한다. 특히 기독교 배경의 호주의 앵글로 사람들이 무슬림을 이해하고 교류하려는 노력들은 기독교 학교의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sup>44</sup>

## V. 호주 유나이티드 교회의 커뮤니티 선교 - 교회 공간의 선교적 적용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호주는 이민정책을 통해 국가적 기틀을 다지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경험하면서 호주의 국민이 타자를 이해하고 평화적인 공존을 이룰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장려하였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국가적 관점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강제적인 무슬림 동화 정책이 수반되었고 이슬라모포비아가 내재해 있는 가운데 교회가 이를 묵인하고 국가 정책의 동반자 역할을 하였던 것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교회가 지속적으로 무슬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타자들을 배제시키고 주변화 시키는데 동조하였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44 Ibid., 2.

그러나 교회가 무슬림을 향한 차별과 소외 현상을 자각하고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새로운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을 선보이고 교회로서는 정의와 자비를 베푸는 실질적인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무엇보다 교회가 유대기독교적 가치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행위, 그 차별주의적인 동화 정책을 배제한다면 매우 다양성 있고 가능성 있는 선교 담론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반무슬림 감정, 이슬라모포비아의 폐해로 인한 사회적 현상을 교회 안의 선교적 담론으로 확장시키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논의들을 이뤄갈 때 교회는 무슬림과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 복음의 대화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향성은 구체적으로 이웃으로서의 교회, 커뮤니티 활동을 병행한 교회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인 노력은 현재 호주 교회 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호주 유나이티드 교회의 종교적 타자를 위한, 타자와 함께 하는 커뮤니티 활동은 무슬림을 비롯한 사회적 주변인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 우선적인 선교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sup>45</sup> 유나이티드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실천은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형성된 호주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국민들 일상적인 의식과 태도 속에 어울림과 공존에 대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격려되는 사역 들임을 보여준다.

이슬람에 말을 걸고 이슬람을 이해하고 공존의 현장에서 젠더의 문제, 여성과 실업, 난민과 이민의 문제를 담론화 하고 교회의 현장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이 때 신학은 실천을 위한 디딤돌이 되

45 호주 유나이티드교회는 1977년 호주 감리교회와 회중교회 그리고 일부 장로교회가 연합하여 세운 연합 교단이며 호주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회이다. <https://assembly.uca.org.au/about/uca>. (accessed 25 Jan. 2018).

고 교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이슈와 논란들을 다시 신학화 하고 목회에 연결하는 활동이 돋보인다. 호주 유나이팅 교회는 특별히 종교적 타자인 무슬림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공존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것은 무슬림이라는 타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공존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나와 다른 신앙과 전통과 문화를 가진 이들이 차별 없이 좀 더 큰 커뮤니티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다.

호주 유나이팅 교회의 실제적인 무슬림에 대한 담론은 이민자, 사회적 약자, 다문화주의로 확대된다. 이러한 좋은 예로서 유나이팅 교회의 ‘사회정의포럼’(Social Justice Forum)활동을 들 수 있다. ‘사회정의 포럼’을 통해 유나이팅에서 구현하는 공의는 인류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모든 창조물을 보호하고, 테러나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특히 여성, 난민, 청소년, 거리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여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sup>46</sup> 호주 사회 안의 환경과 창조에 관한 신학적인 관심,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 형성, 난민 특히 여성과 어린이, 실업자 등의 인권 문제, 그리고 인종주의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 타종교, 이민자, 무슬림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교회의 선교 담론 혹은 목회 담론으로 풍성해지고 있다.<sup>47</sup>

특히 유나이팅 교회의 사회 정의를 위한 배움과 나눔은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 한 좋은 예로서 모든 유나이팅의 교회들이

46 <https://issuu.com/insightsmagazine/docs/insights-feb-mar-2015> (accessed 25 Dec, 2017).

47 유나이팅 교회의 ‘사회정의포럼’(Uniting Forum)은 호주 유나이팅 교회 안의 사회 정의 사역을 지원한다. 지역교회가 사회의 현안들에 대해 신앙과 실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것이 호주 국가 내의 혹은 국제적인 공식 정책들을 검토하고 연대한다. <https://www.unitingjustice.org.au/refugees-and-asylum-seekers> (accessed 29 Jan, 2018).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General Assembly)와 주총회(Synods)의 지도와 교육 아래 실시한다. 유나이팅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회정의 실천 프로그램과 조직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나이팅 저스티스’(Uniting Justice)의 활동은 타종교, 특히 무슬림과 소외 계층을 위한 복음과 실천을 주된 목표로 한다. ‘유나이팅 저스티스’에서 발행하는 ‘난민보고서’(REFUGEE WEEK)는 호주 난민에 관한 업데이트 된 정보와 정책,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의 참여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어 있어, 보다 친근하게 난민에게 다가가고 선교적 나눔을 펼칠 수 있도록 권면한다.<sup>48</sup>

‘유나이팅 저스티스’가 주로 복음의 실천을 위한 지식과 나눔을 위해 세미나와 문서 활동에 중점을 둔다면 남호주 유나이팅 주총회(South Australia Synod) 안에 편성되어 있는 ‘도시선교네트워크’(Urban Mission Network, 이하 UMN)는 보다 실제적으로 지역의 교회가 사회적 약자, 종교적 타자를 선교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교육한다.

이 밖에도 2017년, UMN과 ‘필그림 유나이팅 교회’(Pilgrim Uniting Church)는 ‘공공신학의 지역성에 관한 협력’(Collaboration for Local Public Theology)에 관한 워크숍과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2018년까지 포럼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이민과 난민으로 호주 땅에 정착하게 된, 혹은 아직 정착하지 못한 이들과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며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들은 캐나다와 미국의 선교단체들과 공유한다. 이 밖에도 UMN에서 개최되는 ‘필그림 심포지움’(Pilgrim

48 <https://www.unitingjustice.org.au/refugees-and-asylum-seekers>, (accessed 31 Jan, 2018).



Symposium)은 교회의 다문화 사역에 관한 정보와 나눔을 위한 행사이다.

이와 같이 유나이팅 교회는 백호주의와 호주 국가주의를 옹호하는 호주 앵글로 전통 교회의 기존의 방식들, 이를테면 타자를 배제하고 차별하게 되는 권위주의적인 교회에서 벗어나, 이민과 난민의 제도로 이 땅에 오게 된 손님들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공간을 열어 삶과 신앙을 나누도록 지원하고 실천하고 있다.<sup>49</sup>

## VI. 결론

지금까지 호주인들은 다른 서구국가와 마찬가지로 무슬림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안타깝게도 교회와 국가의 협력 속에서 더 가중된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회는 국가의 권위주의와 결합하여 다문화주의, 국가중심주의를 지향하였고 그것은 차별과 인종주의의 폐해를 가져온 것임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많은 교회가 오히려 지난한 역사를 반성하고 새롭게 무슬림을 이웃이며 친구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호주 유나이팅 교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호주의 교회는 국가 권력을 지원하며 무슬림과 같은 종교적 타자를 배제하는 데 동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호주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의 중심에 쉽게 소속되

49 <http://www.urbannetwork.org.au/uploads/images/bulletins/2017-12-UMN-Bulletin.pdf> (accessed 1 Feb, 2018).

지 못하는, 교육과 주거 지역과 환경 등 모든 생활 지표에서 아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자연스럽게 친근한 만남과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의 중심에 속하지 못하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려는 노력은 교회가 사회, 세상, 이웃에 말을 건네고, 교회가 이웃의 삶에 자리에 어느새 스며들고, 교회가 이웃과 눈높이를 같이 하며 그 안에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삶으로 전하려는 선한 실천이다. 그러한 점에서 교회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부서지고 추방당하고 거절당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sup>50</sup> 실제로 많은 호주의 교회들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교회의 공간에서 선교의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무슬림과 같은 이민자들, 특별히 주변화되고 소외되어 있는 여성이면서 난민이면서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학의 자리는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의 자리여야 한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해하자면 그러한 삶의 자리란 지리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손님과 주인의 역할이 역동적으로 교체될 수 있는 “집”에 관한 신학하기를 제안한 세포로사(Seforsa)의 논의처럼<sup>51</sup> 교회가 그들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때 무슬림은 교회와 친구가 되고 복음의 대화자가 될 수 있다.

50 루벤 다스, “하나님 & 난민들: 희망의 근거: 무슬림 난민에 대한 교회의 선교 신학적 반응,”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1(2016): 33.

51 Seforsa Carroll, “Homemaking in the Diaspora from Displaced Guest to Responsible Host,” Stephen Burns & Clive Pearson ed., *Home and Away* (OR: Pickwick Publications, 2013), 214.

■ 참고문헌

- 루펜 다스. “하나님 & 난민들: 희망의 근거: 무슬림 난민에 대한 교회의 선교 신학적 반응.”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1(2016): 30-51.
- 이태주. “호주 다문화주의 역사와 정책 및 담론,” 『다민족 다문화 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1-44.
- 이희진, 문경희 엮음. 『현대 호주사회의 이해』.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1.
- 정승현. “이슬람모포비아의 이해와 선교신학적 함의.”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2, (2016): 9-43.
- Akbarzadeh, Shahram. *Muslim Communities in Australia*. Sydney: UNSW Press, 2001.
- Al-Natour, R. J. “The Constructions of Sydney’s ‘Muslim Ghettos.’” *Contemporary Islam*, vol.9, no.2 (2013): 131-147.
- Abdel-Fattah, Randa. “Islamophobia and Australian Muslim Political Consciousness in the War on Terror.”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vol.30, no.4 (2017): 397-411.
- Carland, Susan. *Fighting Hislam: Women, Faith and Sexism*.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17.
- Carroll, Seforsa. “Homemaking in the Diaspora from Displaced Guest to Responsible Host.” Stephen Burns & Clive Pearson ed., *Home and Away*.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3.

- Ghafournia, Nafiseh. "Muslim women and Domestic Violence: Developing a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Religion & Spirituality in Social Work: Social Thought*, vol.36, no.1,2 (2017): 146-163.
- Gary Bouma. *Being Faithful in Diversity*. Adelaide: ATF press, 2011.
- \_\_\_\_\_. "Islamophobia as a Constraint to World Peace: The Case of Australia."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22:4 (2011): 433-441.
- \_\_\_\_\_. "Religious concentrations." *Pointers*, vol.23, no.4(Dec. 2013): 1-6.
- \_\_\_\_\_. "Religious Diversity and the Challenge of *Social Inclusion*," *Social Inclusion*, (ISSN: 2183-2803), vol.4, Issue 2 (2016): 1-2.
- Fozdar, F. "The Importance of Christianity in Australian National Identity Construction."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vol.48, Issue. 2 (2011): 167-186.
- Geaves, Ron. *Islam Today*.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10.
- Iner, Derya, ed., *Report on Islamophobia in Australia, 2014-2016*. Sydney: Charles Stuarts University Press, 2017.
- Itaoui, Rhonda. "The Geography of Islamophobia in Sydney: Mapping The Spatial Imaginaries of Young Muslims." *Australian Geographer*, vol.47, no.3 (2016): 261-279.
- Hassan, Riaz, & Martin, Bill, ed., *Islamophobia, Social Distance and Fear of Terrorism in Australia*. Adelaide: Interna-

- tional Centre for Muslim and Non-Muslim Understanding, 2015.
- Jupp, J. “The Quest for Harmony.” 9–20. in J. Jupp, J. Nieuwenhuysen and E. Dawson, eds., *Social Cohesion in Australia*. V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Murry, Andrew. *What Can The Church Say?: Politics and Religion in Contemporary Australia*. N.S.W: St Pauls Publications, 2005.
- O’Donnell, Kate., Davis, Rachel. & Ewart, Jacqui. “Non-Muslim Australians’ Knowledge of Islam: Identifying and Rectifying Knowledge Deficiencies.”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vol.37, no.1 (2017): 41–54.
- Pearson, Clive. “Home and Away: Faith an Identity in Diaspora.” Stephen Burns & Clive Pearson ed., *Home and Away*.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3.
- \_\_\_\_\_. “Alienated Neighbours/Interpreting the Cronulla Race Riots for Christ’s Sake.” *Forum on Public Policy: A Journal of the Oxford Round Table*. (Summer, 2008).
- Pearson, Jacqui Ewart. “Journalists’ and Educators’ Perspectives on News Media Reporting of Islam and Muslim Communitie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Journal of Media and Religion*. vol.15, no.3 (2016): 136–145.
- Stratton, Jon. “Whiteness, Morality and Christianity in Australia.”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vol.37, no.1 (2016): 17–32.
- \_\_\_\_\_. “With God on Our Side: Christianity, Whiteness, Islam

and Otherness in The Australian Experience.” *Continuum*, vol.30, no.6 (2016): 613–626.

Yasmeen, Samina, ed., *Muslims in Australia: The Dynamics of Exclusion and Inclusion*,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10.

■ ABSTRACT

# A Study of The Contemporary Muslim Community in Australia: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 Cultural Ministry

Kyung Hee Lee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missional practices of the church toward the Muslim community in Australia, who have coexisted for a long time in Australian history. Unfortunately Islam has been constructed as “other” from the beginning of the immigration history in Australia. This article investigates not only the categorization of “other” of Muslims from the main stream in Australian society but also examines discourses on the topic of being neighbors with Muslims as a Church community today.

Firstly, the article focuses on the current issues of Australian Muslims and their community, specifically on assimilation and struggle with the Australian multicultural policy. In addition, it observes the negative non-Muslim perception or ignorance about

Islam in Australia, which has grown worse due to ongoing terrorism all over the world by Muslim extremists.

In regard to the negative perception of Islam and Muslims in Australi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articular phenomenon of Islamophobia. The perception is drawn from conservatives with values derived from Judeo-Christianity in Australia; Muslims are stereotyped as a violent community in this particular context.

These critical issues, which are observed in light of the multiculturalism, assimilation, and the misunderstanding of Islam in Australia, enable us not only look at the established enforcement of the church and state for the purpose of Australian nationalism, but also see how these policies and political intentions have brought about discrimination and racism against Muslims migrants in the country. Moreover, these reflective issues help us to recognize that Australian Muslims have always lived in the sphere of marginality because of their religion and culture.

With this perspective, the finding of this study focuses on the marginalized space of Muslim community. Ironically this space provides various contact points for some missional churches to be a neighbor to the Muslim communities and to build up a reconcilable relationship between Muslims and Christians. Finally, this study introduces some homemaking activities and efforts of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UCA) with regard to the concept of locality,

www.kci.go.kr



the theology of place, which have been formed among Christian communities especially to migrants, women, and refugees.

**Keywords:** Australian Muslim, Church and State, Social Cohesion, Migrants, Marginality, Missional Church, Community, Homemaking, Hospitality,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